

예전과는 달리 세계화·지구촌화의 추세로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우리의 지근거리에서 많이 살고 있다. 미국선거가 부시의 재선으로 마무리 된 후, 미국인 친구들과 점심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상당한 반감의 대상이기도 한 부시대통령이 재선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여러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답은 '도덕적 가치'가 보수적인 시민들이 이미 중병된 부시를 선택한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바꿔 말하자면 케리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그의 도덕적 불투명성에 있다는 것이다.

세계 으뜸의 삶으로 여유와 미소를 잃지 않고 사는 그들에게 테러리즘이 바로 가장 두려운 위협이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도 일종의 적극적인 테러와의 전쟁으로 받아들였으며, 무엇보다도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의 상품화를 비롯한 도덕적 혼돈, 그리고 가족의 붕괴 등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들이 약간의 진보적인 케리 후보에게서 불안을 감지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라는 것이다.

부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졌으면서도 자신의 소신에 대해 항상 '나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함으로써 동지에게나 적에게도 분명



불자 세상보기

이희애
광주대 철학과 교수

미국의 대선읽기 코드는?

한 메시지를 전했다. 정치가들이 여러 이익집단들의 상충된 이해관계 때문에 눈치를 살피는 성향에 반해서, 분명하게 '아니다'를 말하는 것이 사실에서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법하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황우석 교수가 연구하는 배아복제연구에 대해 부시는 반대사를 분명히 했고, 동성결혼이나 낙태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가족제도를 수호하고 가정을 중요시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번 선거의 이슈는 이러한 '도덕적 가치'가 상당히 부각되었고, 그러한 가치를 지지하는 약 80%의 미국인들이 부시의 지지자였다고 한다.

도덕적 가치와 안보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어느 사회이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가치 속에는 미국중심, 기독교중심, 백인중심의 가치가 내재해 있으며, 그러한 자국중심의 이분법적 가치관이 문화를 달리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만, 선과 악을 둘로 나누는 흑백논리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정복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미국인의 선량한 시민들이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인에게 있어서 테러를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기는 것 보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인에게 있어서 전쟁의 발발은 위협이 아닌 치명적인 재난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보여준 승복하는 패자와 위로하는 승자의 모습에서 세계평화와 공존, 화합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점이다. 이제 세계 경찰국가들 자임하면서 자국의 이익에 치우쳤던 과거와 달라진 미국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러한 기회가 미소와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미국의 시민들이 추구하는 그 '도덕적 가치'와 어울려 자국 우선의 미국이 아닌 진정한 세계 속의 미국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조계종 22개 종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성향 설문조사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던 더 나은 학교로 자리를 옮기겠다는 의견이 압목적 동조의사를 나타낸 교직원 16%를 포함해 무려 41%나 됐다.

종립학교는 불교적 건학이념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려고 세운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학교의 교직원들은 불교인으로서의 긍지와 교직자로서의 보람을 동시에 느끼며 교단에 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교육효과를 물론 불교적 인재육성을 기대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진다.

문제는 이미 교직원들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시설, 이는 교직원과 학생 모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커다란 요인이 된다. 또한 복지와 관련한 교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자연 전근의 기회만 찾게 만든다. 대우가 다른 학교에 뛰어들어지고, 교직원의 적정 숫자가 모자라 업무가 가중된다면 능률적인 교육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종립학교가 '희망'인데...

이번 조사에서 다행히 건학이념 강요와 재단의 지나친 간섭은 적은 비율로 나타나 최근 서울 대광고의 강의석 교수로 대두된 학생들의 종교선택의 문제는 타종교 학교에 비해 미미해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이 타종교 선택기회가 많은 사회적 분위기를 참작해 그런 문제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도 이 기회에 덧붙여준다.

학생들의 학교선호도를 높이고 교직원들이 선택하는 불교 종립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이번 조사가 종립학교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라는 종립학교관리위원장의 발언도 불교종립학교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감안할 때 불교계가 종립학교 문제에 얼마나 안이했었는지 그동안 강조한 학교발전이 한발 구호에 그쳤던가를 반증하고 있다.

결국 종립학교에 대해 종단이나 재단이 융두사미시 관심이 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도 과감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만이 당면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를 알았으니 개선대책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될 것이다.

■도수(정명도량 회주)



이렇게 들었다 '성공'의 그림자

욕망의 그림이 씩씩지고, 애욕의 덩개가 닳아지고, 어리석음의 마음이 결박한다면, 물고기가 어부의 손에 들어온 것이나 다를 바 없다.(법집오승경)

'젊은' 성공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대학생 성공신화'로 TV, 월간지에 성공사례로 소개되는 등 주목받는 청년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던 K모(30) 씨,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의 K 씨는 대학 4학년 때 신선한 떡볶이를 타게 2층에 빙수 가게를 차린 후 신설하는 지점마다 대학을 타뜨리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02년 중순 인터넷에서 우연히 강원랜드 광고를 접하면서 '날개없는 추락'이 시작됐다. 도박의 늪에 빠진 K 씨는 마카오 등지를 전전하다 전 재산을 날렸으며 급기야 도박빚을 메우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작년 12월 구속됐다.

'25살 CEO'로 매스컴을 탔던 K모(28) 씨, 피하고와 카이스트(KAIST)를 졸업한 김 씨는 2001년 1월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전문업체를 설립했고, 두 달 만에 7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뛰어난 경영수완을 발휘했다.

그러나 2002년 12월 설립 자본금 30억원을 위장납입하고 영업실적이 저조한 10개 엔터테인먼트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올리는 '반칙'을 했다. 결국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2개월여 도피생활 끝에 최근 형량 신세가 됐다.

이 젊은 성공신화들이 추락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성공에 급급한 나머지 '욕망의 그림'이 씩씩져 옳고 그름의 분별없이 더 큰 대박을 위해 앞으로 내달리지만 했기 때문이다.

느리게 갈 지라도 바른 길을 걷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온다.

■남동우(우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스님은 불교의 얼굴

우리 지역의 한 절에 갈 때마다 무척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절의 주지 스님 때문이다. 그 스님은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모님' 보살들을 무척 좋아한다. 법회가 끝날 때마다 '사모님' 보살들이 무엇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00사모님 일이나 세우, 박수'라고 한다. 평등하게 중생을 보듬어주어야 할 절에서까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서럽다. 물질적 가치로 인해 사찰에서까지 차별 대우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아는 어느 교구 부부는 몇 군데 사찰에서 이와 유사한 스님들의 행태를 목격하고는 불교가 싫어졌다, 다른 종교로 개종하기까지 했다.

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성직자의 인품과 종교 단체의 분위기로 그 종교의 모든 것을 판단한다. 불교의 얼굴은 스님들이다. 스님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있던 불자가 떠나가기도 하는 것을 보면 무척이나 안타깝다. 재가불자들은 스님의 한 마디에 무척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스님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스님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물론 존경받아 마땅한 스님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여러 사찰을 다니다 보면 사찰이 속세의 가치체계를 따라가면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지역 스님들일수록 더욱 직접적으로

재가불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고, 구도의 길을 걷는 한 걸음걸음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포교라는 것은 무조건 다른 종교인이나 무종교인을 불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절에 다니고 있는 불자들의 신심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영숙(청원시 대방동)

종교편향 대응 제대로 하자

498호에 실린 '정장식 시장 종교편향 대응' 기사를 읽었다.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종교편향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면서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흥분의 목소리를 높이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흐지부지 끝나고 말기 때문이다.

포항사암연합회와 신행단체들이 대책 위원회를 발족시켰지만, 이번 정 시장 종교편향 활동에 대한 대응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사실 매년 그런 기사를 접할 때면 분하면서도 부끄러울 때가 많다.

이번 사건은 모든 불교계가 나서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문제가 지역 불교계에 국한된 일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할 때도 지역불교계에만 맡겨둘 것인가.

이번에도 불교계가 이렇다할 대응조차 하지 못한채 이 일을 넘긴다면 또 한번 부끄러워지는 일이다.

남상희(울산시 남구 삼산동)

문관부 중무실 축소 옳지 않다

종교업무를 총괄하는 문화관광부 중무실이 축소된다고 한다. 작년에 중무실 폐지가 처음 거론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부관계자들이 종교업무를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오죽하면 정부 구조조정 1순위가 종교 관련 업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50%이상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 그 추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를 통합하고 정신적 대안을 제시하는 종교의 역할과 기능 또한 확대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줄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강화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오히려 축소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정부는 중무실 개편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무실을 축소한다고 해서 종교업무까지 축소해서는 안 된다. 담당 부서의 업무조정 계획이 있는 만큼 최대한 고용 업무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김성철(서울 중구 장충동)

'연대' 민영

심민섭



공식이 많다



활 앞은 태산인데...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氣와 사랑의 약손 교습 안내

- 서울시 사라지거는 전통문화 대상선정!

기공·호흡·운동요법·물리요법·자극요법·자세동작교정요법·정신심리요법·명상요법 그리고 기치유와 경락경혈요법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수행하시는 스님과 불자님들의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별적인 특징에 맞추어 관리하여 드리며 약손요법을 배워 주변에 봉사하시라고 하시는 경우에 집중적으로 개별 전수를 해 드립니다.

기와 사랑의 약손 042-472-1881

전통양생법을 통한 건강 지키기 중풍무술내가권(태극권, 형의권, 팔괘장)연구소

▷ 중국전통기공법·중풍무술내가권

체력단련, 자세교정, 집중력강화, 자기조절, 각종 성인병 및 난치병 예방

▷ 벽국법(전통도가식 단식)

- 체질개선, 내장기능 증가 (뱀히 공력이 높은 선생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별 특성, 목적에 맞는 공법지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9 메트로존 604호 (시청 맞은편) 상담전화 : 042-471-1882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벽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시키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기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예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요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기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